



1920년대 경성에서 온 소포 '제 시는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 때쯤은 獨立을 했을런지요'

김소월·윤동주... 초판본 시집 '열풍'

"1920년대에서 정말 소포를 받은 듯 해서 몽클했어요. 초판본으로 다시 시를 읽으니 새로 시를 읽은 듯이 새롭고 슬렸습니다."

최근 출판사 소와다리가 초판본을 복간해 출간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접한 독자의 평이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김소월의 초판본 '진달래꽃'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시집은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인터넷 서점 1위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출판사 측은 1925년 중앙서림 초판본을 원본 그대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문 내용뿐 아니라 표기, 활자까지 동일하게 복원했으며 페이지 구성이나 세로쓰기 형태도 원본대로 맞췄다.

1925년에 첫 발간된 '진달래꽃'은 시인의 사후에도 여러 출판사에 의해 출간돼 왔다. 표기법, 편집자 취향, 출판사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초판본 열풍은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와다리 출판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이어 발간한 윤동주 시집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진달래꽃' 1925년 원본 복원 베스트셀러 진입 '하늘과 바람과...'도 인기 '응답하라' 복고 열풍 맞물려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특이한 점은 초판본 두 시집의 주요 구매자가 20대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젊은 세대가 시를 읽고자 하는 욕망이 크고 '아날로그' 문화를 성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문화출판계에 초판본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침체된 문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복고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1988년 당시에 나온 소포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 과거와 음료가 출시되었고 광고도 방영 중이다. 1988년 베스트셀러였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정은하 엮음·진선북스)는 '응답하라 1988'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출판사 진선북스에서는 최근 초판본과 같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를 펴냈다. 원래 이 책은 '예언자' '광인' 등으로 알려진 칼릴 지브란과 그의 후원자 메리 헤스켈이 주고받은 글에 지브란의 다른 대표작에서 발췌한 글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대인들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성찰, 인간에 대한 애정 등이 담겨 있다.

초판본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은 '오래된 것들'이 지닌 순수함과 '처음'이라는 희귀성의 가치에서 연유한다. 또한 성과 위주의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책을 매개로 낭만이 있던 시절로의 회귀를 꿈꾸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와다리 김동근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책방이나 굿동점 등에 가면 기분이 묘하잖아요. 오래된 물건을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시집들은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미려한 매력 이 있죠"라고 말했다.

소와다리는 독자에게 시집을 보낼 때도 특별한 방법을 택했다. '경성에서 온 소포'라는 패키지로 구성해 경성우편국 수달인 봉투를 사용했다. 책과 함께 명동 풍경 엽서, 대한제국 시절 우표를 동봉해 독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작각이 들게 했다.

엽서에는 '제 시는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 때쯤은 獨立을 했을런지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마치 김소월 시인이 속삭이는 듯한 정겨움을 준다. 소와다리 측은 마케팅 면에서도 신선하면서도 복고적인 기법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도 초판본 발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소와다리는 후속작으로 1936년에 나온 백석의 '사슴을 피낼 예정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은 어느 독자의 평은 초판본 열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박한 느낌은 있지만, 아무 꾸밈 없이 글자만으로 온전히 전달받는 그 마음... 초판본을 찾아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가족 공예 직접 만들어보세요"

광주여성재단, 북카페서 작은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가족 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북카페에서는 지역여성 작가들의 솜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제2차 작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작은 전시는 가족 공예 강승희 작가의 'Antique Leathe'전이다. 전시에서는 가족에 수작업으로 조각, 염색, 바느질을 더해 만든 가방, 파우치, 키홀더, 보석함 등 생활 소품들을 만

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북카페에서 열린다. 강승희 작가와 함께 가족 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www.gjwf.or.kr)와 팩스(0620670-0505)로 신청수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670-05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청사초롱' 상반기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6전통문화예술강좌 '청사초롱'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전통공예(산조가야금 만들기), 판소리, 가야금 배우기 등 총 12개 강좌로 올해 처음 청소년 판소리 부문을 신설했다.

강사진은 ▲전통공예=이복수(무형문화재 제12호 약기장) ▲판소리=정훈실(무형문화재 제15호 판소리 동편제), 이명래(제14호 판소리 강산제), ▲청소년 판소리=방성춘(제16호 판소리 춘향가) ▲판소리교본=김남중(제11호 판소리교본) ▲가야금 배우기

와 청소년 가야금병창=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이영애(제18호 가야금병창) ▲전통음식=이애섭(제17호 남도의례음식) ▲전통다례=김영미(한국차문화협회 호남지부 전문강사) ▲채색화=이성인(작가) ▲전통무용=김덕숙(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광주시 무형문화재 위주로 구성했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강좌당 10~20명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모든 강좌는 오는 3월부 26일까지, 매주 1회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문의 062-232-1502. /윤영희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자원봉사자 20여명 모집

국립나주박물관 20일까지 2016년 신규 자원봉사자 2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전시해설, 박물관 교육, 도서 관리 등 3개 부문이다. 전시 해설은 전시실 내에서 해설을 비롯해 관람객 안내, 질서 유지 등을 맡게 된다.

박물관 교육은 교육, 체험프로그램, 기타 행사 등을 지원하며, 도서관리는 도서 분류, 라벨 작업 등을 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최소 주1회 4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기본·심화교육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박물관 홈페이지(naju.museu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무급 활동이지만 봉사활동에 필요한 중식과 교통비 등이 제공되며 봉사활동시간이 인정된다. 문의 061-330-78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와 '시크릿'은 30주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김정운의 신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는 심리학적 통찰을 맞닿스럽게 풀어낸 산문집이다. 책에서 멀어졌던 남성들을 주요 독자로 삼아 출간 4주 만에 1위에 올랐다. 구매층 중 남성이 54.4%로 여성보다 많으며, 이 가운데서도 40대 남성이 3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미움 받을 용기' 49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 내줬다

김정운 '가끔은 격하게...' 헤민 '완벽하지 않은...' 차지

'미생' 이후 유례없는 장기 독주를 이어왔던 '미움 받을 용기'가 49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서 물러났다.

예스24에서는 1월2주차 1위에 오른 김정운 교수의 신작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가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에서

도 2월 들어 헤민 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1위 자리를 꿰차며 49주 간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교보문고 기준으로 '미움받을 용기' 이전의 최장수 베스트셀러 1위 기록은 2011년 35주간 1위에 올랐던 김난도의 '아프니



까 청춘이다'였다.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31주간, '다빈치코드'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Includes portraits of four men (시술전, 시술후) and promotional text for M.H.타사 신제품 59만원. Contact: 010-3600-9955.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Includes photos of wood stacks and contact info: (061)374-1234.